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1. 개념학습 9강 시조 세 편 분석서술형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가)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하늘의 뜻에 달렸으니) 만월대(滿月臺) \* 도 추초(秋草) | 로다(몰락한 고려 왕조의 모습 시각적 심상 사용으로 구체화)

▶ 초장: 황폐해진 고려 왕조 옛 궁궐터의 모습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몰락한 고려 왕조의 모습 청각적 심상 사용으로 구체화)에 부쳐시니(남아 있으니)

▶ 중장: 목동의 피리 소리에 담긴 고려 왕조의 업적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자신을 객관화하여 표현)이 눈물계워 흐노라

▶ 종장: 고려 왕조의 몰락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 원천석

\* 만월대 : 개성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있는 고려의 왕궁 터 이름.

▣ 현대어 풀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운수에 매여 있으니 고려의 옛 왕궁 터에 가을 풀만 우거졌도다.  
고려 오백 년의 찬란했던 역사가 한낱 목동이 부는 처량한 피리 소리에 담겨 있으니  
석양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눈물을 참지 못하는구나..」

▣ 핵심 정리

- 시대: 고려말~조선초
- 갈래: 평시조, 단시조
- 성격: 회고가(懷古歌)
- 주제: 고려의 멸망을 슬퍼함
- 표현: 선경 후정(先景後情)
- 출전: 청구영언(靑丘永言)

▣ 이해와 감상

전형적인 회고조의 노래이다. 서정적 자아는 망국(亡國)의 유민(流民)으로,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폐허만 남은 궁궐터를 지나면서 망국의 한을 노래하고 있다. 표현은 대체로 직설적이지만, '秋草(추초)'와 '夕陽(석양)'이란 시어가 이 시조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면서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을 풀은 시들어 가고 있는, 또는 이미 시들어버린 풀이다. 따라서 '滿月臺(만월대)도 秋草(추초) | 로다'라는 구절은 단순한 가을의 서경만이 아니라 '고려 왕조의 멸망'이란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것이다. '夕陽(석양)'도 같은 식으로 이해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장과 중장은 고려 왕조에 대한 담담한 회고로 그 내용이 유사하며, 종장은 망해버린 왕조에 대한 슬픈 감상으로 처리되어 있다. 고려의 충신이었던 작자가 옛 도읍지였던 개성의 궁궐터를 돌아보면서, 지난날을

회고하고 세월의 덧없음을 노래한 '회고가(懷古歌)'로서, 대부분의 회고가의 전개 방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즉, 나라의 멸망을 읊은 뒤에, 여기에서 느끼게 되는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어조 또한 애상적이다.

▣ 지문 분석

(나)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개성, 고려의 옛 수도)를 필마(匹馬)(아무런 신하 없이 홀로 말을 타고 감. 혹은 한 필의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벼슬을 하지 않음을 암시함)로 도라드니

▶ 초장: 말을 타고 고려의 옛 도읍지에 들어감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히되 인걸(人傑)은 간 데 업다(대조, 대구, 인간의 유한성, 맥수지탄(麥秀之嘆))

▶ 중장: 자연은 그대로이나, 인걸을 없는 옛 도읍지의 모습

어즈버(감탄사, 시조 종장 첫 음보는 3음절 유지) 태평연월(太平烟月)(고려의 융성했던 시절)이 꿈(무상감 집약. 고려 왕조의 몰락이 한갓 꿈처럼 덧없다. 일장춘몽(一場春夢))이런가 흐노라

▶ 종장: 고려의 태평연월(太平烟月) 시절에 대한 무상감

- 길재

▣ 현대어 풀이

오백 년이나 이어 온 고려의 옛 서울(송도, 개성)에 한 필의 말을 타고 들어가니

산천의 모습은 예나 다름 없으나, 인걸은 간 데 없다.

아, (슬프다!) 고려의 태평한 시절이 한낱 꿈처럼 허무하도다.

▣ 핵심 정리

- 연대 : 고려가 망한 직후
- 갈래 : 평시조, 단시조, 회고가
- 성격 : 회고적, 감상적, 영탄적
- 표현 : 대조법, 영탄법
- 운율 : 3.4조(4.4조), 4음보
- 제재 : 오백 년 도읍지
- 주제 : 고려 왕조 회고

▣ 이해와 감상

고려 유신으로서 망국의 한(恨)을 노래한 회고가로, '필마'에는 벼슬하지 않은 외로운 신세, '태평연월'에는 고려조의 흥성했던 시절, '꿈이런가'에는 무상감이 비유적으로 나타나 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기간은 정치적인 격변기였다. 고려 왕조가 망하고 새롭게 조선이 건국됨에 따라 '군신유의(君臣有義)'라는 유학자, 선비들의 덕목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갈등이 시인들의 작품에 투영되었는데, 크게 옛 왕조에 대한 회고의 정과 변함 없는 충절을 표현한 것과, 새로운 왕조에 대한 애국·충절을 표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지문 분석

(다)

선인교(仙人橋) \* 나린 물이 자하동(紫霞洞) \* 에 흘러드러('선인교', '자하동' 모두 과거 흥성했던 고려를 상징)

반천 년(半千年) 왕업(王業)(고려 왕조 500년)이 물소리뿐(고려 왕업의 무상감)이로다

아희야(영탄법, 시조 종장 첫 음보 3음절의 정형성) 고국 흥망(故國興亡)을 물어 무습 헝리오(설의법, 무상감을 극복하려는 태도와 동시에 자기합리화)

- 정도전

\* 선인교 : 개성 자하동에 있는 다리

\* 자하동 : 개성 송악산 기슭에 있는 경치 좋은 골짜기

▣ 현대어 풀이

선인교 아래 흘러내리는 물이 자하동으로 흘러들어  
오백 년 화려했던 고려 왕조가 물소리뿐이로구나.  
아이야, 고려가 흥하고 망한 것을 물어서 무엇하겠느냐.

▣ 핵심 정리

■ 갈래 : 평시조

■ 성격 : 회고적, 애상적

■ 표현 : 영탄법, 설의법

■ 구성 :

초장 - 망국의 도읍지의 모습

중장 - 덧없는 고려의 왕업

종장 - 조선 개국 공신으로서의 감회 제재 : 고려의 멸망

■ 작가 : 정도전(조선 개국 공신)

■ 주제 : 고려 왕조의 무상감

▣ 이해와 감상

자하동에 있는 선인교를 돌아보며 고려 왕업의 무상함을 노래한 작품이다. 조선조 개국 공신으로 이 태조의 총애를 받고 있는 지은이지만 고려 왕조에 등과하여 녹을 먹었던 그로서는 한 나라의 흥망이 한 날 꿈과 같다는 무상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선인교', '자하동'이 고려 왕조의 융성을 뜻하는 것이라면, '물소리'는 고려 멸망의 허무감, 무상감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장에서 '물소리뿐이로다'라고 하여 무상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종장의 '무려 무습헝리오'라는 표현에서는 이를 극복하여 개국 공신으로서의 면모가 엿보인다. 이 시조는 지은이가 고려 왕조를 회고하면서도 시세에 따라 함을 은근히 드러냄으로써 새 왕조에 비협조적인 고려 유신들을 달래고 자기합리화를 한 노래라 할 수 있다.